

현대패션에 나타난 어깨강조 표현에 관한 연구

최진영* · 권수애 · 김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A Study on the Shoulder Emphasis Expressions in Contemporary Fashion

Jin young Choi · Soo Ae Kweon · Ji Young Kim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인간의 인체는 오랜 역사를 거쳐 오면서 여러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변형되고, 과장되어 왔다. 복식과장은 대체로 실루엣의 과장을 의미하는데, 복식의 선과 실루엣이 실제의 신체보다 눈에 띄게 확대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복을 말한다.

어깨 강조 표현은 권위, 재력, 위엄의 상징으로 역사 복식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현대 스트리트 패션에까지 어깨강조 스타일이 유행하여 중요한 패션경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로는 가슴과 힙을 중심으로 한 복식확대의 의미와 복식확대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어깨강조 표현 연구를 통하여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표현 양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패션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과거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어깨강조 표현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연구와 컬렉션 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이론적 연구로는 과거 역사 복식과 20세기 패션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였고, 실증적 연구로는 2007 F/W 에서부터 2010 S/S Collection에 나타난 다양한 어깨강조 표현을 분석하였다.

3. 역사 복식에 나타난 어깨강조 표현

3.1 역사 복식에 나타난 어깨 강조 스타일

중세고딕 시대는 입체재단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복식확대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십자군 병사가 호신용으로 입었던 상의에서 변형된 푸르푸엥은 중세고딕 초기에는 윗몸에 잘 맞는 형태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소매의 윗부분인 어깨 부위를 부풀려 심을 넣어 착용

하였고 고딕시대의 대표적 과장복식인 우플란드에서도 풍성하게 주름을 잡아 어깨부위를 풍성하게 표현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는 강조표현이 가장 극대화 되었던 시기로 어깨에 고래수염이나 형겔조각 등으로 만든 패드를 넣어 부풀렸다. 더블릿과 여성의 로브의 진동돌레에 에폴렛 장식을 하거나 까운 또는 케이프를 풍성하게 착용하여 어깨를 강조하였다. 여성의 로브에서는 어깨에 슬릿을 내어 슈미즈를 슬릿 밖으로 꺼내 풍성하게 하거나 레그오브머튼 슬리브, 퍼프 슬리브, 행잉 슬리브 등의 어깨를 강조하는 소매가 나타났다.

바로크 시대에는 남성의 푸르푸엥과 여성의 로브에서 어깨 강조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남자복식은 패드, 퍼프, 슬래쉬를 사용하여 부피가 큰 실루엣을 이루고 있다.

로맨틱 시대에는 X자형 실루엣으로 허리를 조여 어깨를 강조하였다. 지고트 슬리브, 매머크 슬리브, 레그오브머튼 슬리브, 슬래쉬드 슬리브, 드롭숄더, 어깨장식인 펠레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2 20c 패션에 나타난 어깨강조 스타일

1930년대는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불황과 실업의 혼란이 이어짐에 따라 제복과 같은 밀리터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성의 복식에서는 내추럴 와이드 숄더 실루엣(역삼각형의 실루엣)과 바디스는 약간 피트되고 각이진 어깨 등이 나타났다.

1980년대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패션에도 반영되었다. 남성적 비즈니스 슈트 스타일인 파워드레싱과 과장된 어깨와 볼륨감 있는 오버사이즈가 나타났다.

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어깨강조 표현

2007년 이후 1980년대 풍의 유행과 함께 패션스타일에서도 어깨강조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4.1 강조방법

1) 구성법에 의한 강조

구성법에 의한 강조 표현은 어깨에 패드를 넣어 어깨가 각지고 상체에 여유가 많은 스타일, 남성적인 수트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며 10S/S 컬렉션으로 올수록 조형적인 형태로 어깨를 강조한 스타일이 많이 등장한다. 09S/S 돌체앤가바나와 10S/S 장폴고티에 컬렉션에서는 어깨를 풍성하게 부풀렸고, 09S/S 장폴고티에, 10S/S 아르마니프리베 컬렉션에서는 어깨 부분에 다트를 넣어 각지게 표현한 형태가 나타난다.

2) 부착법에 의한 강조

부착법에 의한 강조표현은 깃털, 비즈, 기타소재 등을 어깨에 부착하여 어깨를 강조한 형태를 말한다. 07F/W 크리스찬 라크루와, 09S/S 셀린느, 09F/W 디스퀘어드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에 깃털을 부착하여 어깨를 강조하였으며, 09S/S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에서는 컬러가 확실하게 다른 소재를 등글게 잘라내어 어깨부분에 조형적으로 덧붙인 형태가 나타난다.

4.2 어깨강조 형태

1) 각진형

각진형태의 어깨강조 표현은 어깨에 패드를 넣은 것처럼 보이는 둔각의 형태에서, 최근 2010 컬렉션으로 올수록 예각의 형태로 나타난다. 09S/S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이 완전한 직각으로 보이도록 한 형태와, 09F/W 장폴고티에, 10S/S 아르마니프리베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이 예각의 형태로 더욱 뾰족하게 나타나며, 위로 솟구친 형태로 보여짐을 알 수 있다.

2) 둥근형

둥근형태의 어깨강조 표현은 상의전체를 등글게 표현한 방법과 어깨부분만을 등글게 표현한 방법으로 나뉜다. 09F/W 루이비통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에 퍼프나 주름을 주어 어깨를 볼륨감 있게 강조함으로써 부드러운 느낌을 더하였으며 09S/S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에서 소매부분에 이르기까지 등글게 형태를 강조함으로써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주었다. 09F/W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에서는 상의와 소재가 같은 원형장식을 덧붙임으로 하여 로맨틱한 느낌을 전달하였다.

3) 혼합형

혼합형의 어깨 강조 표현은 각진형태와 둥근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난 형태로 09 S/S 돌체앤가바나 컬렉션을 살

펴보면 전체적 어깨 형태는 둥근 형태로 보이지만 각 모서리가 직각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08 F/W 크리스찬 라크루와 컬렉션에서는 드롭숄더 형태로 어깨를 강조하며 전체적 형태는 직각이나 퍼 소재를 사용하여 딱딱해 보이지 않고 등글게 볼륨감을 준 형태를 볼 수 있다.

4) 기타

기타 형태의 어깨 강조표현은 조형적, 기하학적으로 나타난 어깨강조 표현을 말한다. 08S/S 아르마니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을 노출하여 강조한 중세 로맨틱 시대의 드롭숄더나 펠레린과 같은 형태와, 09S/S 크리스찬라크루와, 10S/S 아르마니 프리베 컬렉션에서는 어깨부분에 박쥐의 날개 형태처럼 보이는 조형적 재킷을 볼 수 있다.

4. 결론

어깨 강조 스타일은 과거 역사복식에서부터 현대 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역사 복식에서는 어깨와 상체 전체를 등글고 풍성하게 강조한 스타일이 많으며 20C에는 Y자형 실루엣이 주류를 이루어 매니쉬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최근컬렉션에 나타난 어깨강조 스타일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슬림하며 10S/S 컬렉션으로 올수록 어깨 자체만을 조형적으로 강조하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뤄 여성적이고 페미닌한 느낌을 준다.

참 고 문 헌

- 이기열, 강병석. (2008). 현대 패션의 과장된 인체조형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8(1), 397-407
- 성광숙. (2002). 복식 확대 현상의 내적 의미에 관한 연구. **디자인연구**, 1, 41-54.
- 김호정, 김순자. (2005). 현대패션에서의 과장형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6), 883-895.
- 성광숙, 이순홍. (2004). 서양복식에 나타난 양적과장의 미의식에 관한연구(II). **복식학회**, 54(7),151-164.